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종전 기대감 확산, 미국 증시 급등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급등: 다우 +2.49%, 나스닥 +3.83%
- 반도체·빅테크 중심 안도 랠리..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대 급등
- 거시지표는 대체로 완만히 둔화

Summary

미국 증시 주요 지수 급등

3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이란 전쟁이 종전에 이를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크게 반영한 가운데 일제히 급등. 3월 마지막 거래일이자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이 날 월말/분기말 윈도드레싱/리밸런싱이라는 수급 효과까지 더해져 지수 오름폭 확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2.49% 상승한 46,341.51에 마감. S&P500지수는 2.91% 상승한 6,528.52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3% 상승한 21,590.63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3.41% 강하게 상승.

다만 이 날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월간 기준으로는 주요 지수 모두 각각 5% 안팎 하락. 다우가 5.38%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5.09%, 4.75% 하락.

미국-이란, 한 목소리로 종전 기대 높여

이 날 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 트리거는 다름 아닌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고 거듭 밝히며 전쟁이 끝나간다고 밝힌데다 이란 대통령도 종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 최근 종전, 협상 등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내왔던 양측이 같은 날 비슷한 결의 신호를 보내자 시장은 전쟁 마무리 국면에 대한 기대를 어느 때보다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군이 이란에서 철수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란에게는 남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가서 직접 열도록 하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해협 개방 없이 종전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도 일맥상통.

이에 종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던 시장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란 전쟁의 해결책은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을 경우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자 종전 가능성을 보다 키워 리스크-온(Risk-On) 현상을 뚜렷하게 보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가 지수가 오름폭을 키웠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대체로 상승.

주식 시장에서는 특히 최근 '터보 퀀트' 이슈를 빌미로 급락했던 반도체주 반등이 두드러졌음. 구글 '터보 퀀트' 이슈에 차익 실현성 움직임을 보이던 AI 반도체 기업들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과 그로 인한 자본 지출 축소에 대한 걱정을 최근 주가에 반영했으나 이 날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며 낮아진 주가 수준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6%대 급등. 종전 기대감에 월가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는 17.5% 급락한 25.25를 기록. 다만 아직 심리적 저항선 20은 상회.

경제 지표는 대체로 완만히 둔화

한편 이 날 발표된 미국의 거시 지표는 대체로 완만히 둔화하는 모습.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월 구인 이직 보고서 JOLTs에 따르면 미국의 2월 구인 건수는 688만 2천건을 기록해 1월 수정치에 비해 35만 8천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시장 예상치 692만건도 하회. 2월 한 달 채용건수도 484만 9천건으로 집계돼 1월 수치보다 49만 8천건 감소.

시카고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시카고 PMI는 3월 52.8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 55를 하회. 여전히 기준선 50을 상회해 확장 국면에 있지만 이번 수치는 올 들어 예상치를 가장 크게 하회하는 수치. 미국의 지난 1월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12월 대비 다소 둔화하는 모습. 완만하게 둔화하는 거시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을 약화하고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 기준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재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있음.

(다우 +2.49%, 나스닥 +3.83%, S&P500 +2.91%, 러셀2000 +3.41%)

특징종목

빅테크 강세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아진 이란 전쟁 종료 가능성, 월말/분기말 윈도드레싱/리밸런싱 영향이 반영된 수급적 효과 등으로 시장 전반, 특히 시장 내 비중 대비 낙폭 컸던 대형 기술주가 강하게 상승. 메타 플랫폼스(+6.67%), 아마존닷컴(+3.66%), 애플(+2.90%), 알파벳(+5.02%), 엔비디아(+5.59%), 테슬라(+4.64%). 이 중 메타 플랫폼스는 AI 기반 웨어러블 제품 라인업을 확장, 레이벤의 새로운 스마트 안경 두 종을 출시했으며 아마존은 델타항공기 500대에 2028년부터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만 이 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적은 대체로 부진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3.12%)가 1분기 무려 23% 급락해 동종 기술주나 나스닥 지수 대비 훨씬 부진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기업 가치의 거의 4분의 1이 감소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기 하락폭으로는 최대.

마블 테크 효과: 반도체주 급등

이 날 나스닥100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마블 테크놀로지(+12.80%). 엔비디아 +5.59%)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마블 테크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촉매. 엔비디아는 마블을 자사의 인공지능 및 무선 접속 네트워크 생태계에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소식은 그간 전쟁 이슈로 짓눌렸던 기술주 반등의 촉매가 됐으며 ARM 홀딩스(+10.46%),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9.30%),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7.58%), 인텔(+7.14%),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8.09%), 웨스턴 디지털(+7.48%) 등 반도체 밸류체인 내 관련 기업을 포함한 기술주 전반이 대체로 강하게 상승함.
브로드컴(+5.49%), AMD(+3.7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4.14%), 램리서치(+6.87%),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5.78%) 등 이외 반도체주 전반이 상승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6.24%)도 급등.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93%)는 씨티그룹이 최근 디램 현물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기존 510달러에서 425달러로 하향한 가운데 전일 낙폭 대비 반등폭 제한적.

최근 반도체, AI 관련주와 반대로 움직임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날도 반도체 대비 부진해 제한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모습. 오라클(+5.99%)이 AI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수 천 명의 감원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팔란티어(+6.35%)도 오름폭이 컸지만 서비스나우(-0.40%)가 하락했고 세일스포스(+0.89%)와 인튜이트(+0.78%), 어도비(+0.81%)는 소폭 상승함.

네오클라우드 강세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12.03%)가 급증하는 컴퓨팅 파워 수요에 대응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 확장을 위해 85억 달러 규모의 지연 인출 조건부 대출을 확보. 이번 대출은 최초의 투자 등급 GPU 기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의미. 네오 클라우드 업체 네비우스(+12.46%), 어플라이드 디지털(+15.55%) 등이 동반 급등.

헬스케어, 인수 합병 등 개별 이슈에 급등락

아펠리스 파머슈티컬스(+135.40%)는 바이오젠(-2.26%)이 회사를 56억 달러에 현금으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폭등. 바이오젠은 이번 인수를 통해 면역학 및 희귀 질환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수 자금 부담으로 하락.
센테사 파머슈티컬스(+44.02%)는 일라이 릴리(+3.74%)가 회사 인수에 합의했다는 발표 이후 급등.
노보노디스크(+4.14%)는 회사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장기 구독 플랜을 발표한 이후 강세. 환자들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구독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사제의 경우 연간 최애 1,200달러, 알약의 경우 연간 최대 60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음.

에너지,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약세

다만 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주가 부진했고 최근 하락 구간 시장 대비 선방했던 방어주 성격의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업종도 이 날은 상대적으로 부진. 에너지 섹터에서 엑슨 모빌(-1.06%)과 셰브론(-1.81%)이 각각 1%대 하락했고, EOG 리소시스(-3.55%), 옥시덴털 페트롤리엄(-1.87%) 등도 하락.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컨스털레이션 에너지(-6.48%) 낙폭이 특히 컸는데 이 회사는 컨퍼런스 콜에서 실망스러운 연간 실적 전망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크게 기대했던 기술 기업과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았음. 회사 CEO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곧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긴 하지만 아직 새로운 발표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혀 실망감을 던져줌.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는 코카콜라(-0.29%), 펩시코(-0.98%) 등이 하락했고, 허쉬 컴퍼니(-2.65%)가 비교적 큰 폭 하락. 시즈닝 제조사 맥코믹(-6.11%)도 낙폭이 컸는데 이는 회

사가 유니레버의 식품 사업부를 현금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약 450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읽힘.

이외 이 날 실적을 발표한 시장 데이터 분석 업체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스(+6.08%)는 회계연도 기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한 영향으로 강세. 나이키(+3.08%)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관세 영향과 중국 및 북미 지역의 불균등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 다만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그리고 이익률 감소 등에 주목해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8% 이상 급락.

한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스냅(+14.43%)은 행동주의 투자자 아이레닉이 스냅 지분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냅의 증강현실 사업인 스펙스 사업부를 폐쇄하는 등의 주가 상승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급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하락

미국과 이란이 같은 날 종전 의사를 내비치자 전쟁 마무리 국면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확산돼 유가 하락과 함께 미 국채 금리도 하락.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3.2bp 하락한 4.316%를 기록해 4.5%대에서 멀어졌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5bp 하락한 3.793%를 기록. 최근 5%대에 근접했던 30년물 금리는 0.1bp 하락한 4.910%를 기록. 10년물과

달러화 가치 6거래일만에 하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6거래일만에 처음으로 하락.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확산하며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달러 가치도 약세 전환.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0 아래로 내려가. 전일 대비 0.63% 하락한 99.872를 기록.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 강세-달러 약세를 반영해 0.02% 상승한 1.15달러를 기록. 전일 달러/원 환율 급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있었던 가운데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505.30원에 최종 호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고려하면 전장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1.530.10원) 대비 23.45원 급락한 셈.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하락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데 이어 머지않아 전쟁을 끝낼 뜻을 다시 한 번 밝힌데다 이란 대통령 역시 종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자 하락. WTI는 1.46% 하락한 배럴당 101.38달러에 마감해 4거래일만에 하락했으며 장 중 100달러를 하회하기도. 브렌트유도 3.4% 하락한 103.97달러를 기록.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도 전장 대비 8.7% 급락. 금리 하락과 함께 금, 은, 구리 등의 금속 가격도 일제히 상승. 특히 은값이 강하게 상승해 온스당 75달러선에 근접.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